

■ 화제의 뉴스 ■

부실기업 통째로 사들인 유암코의 새 도전

은행권이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(이하 유암코)가 법정관리(회생절차)를 선택해야 할 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을 통째로 사들여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.

유암코는 지난해 말 제지업체 세하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 전자, 조선 관련 업체 인수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유암코는 그동안 은행권의 부실채권(NPL)을 매입해 담보물을 처분하는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.

유암코는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을 통한 회생에 실패한 기업이 법정관리(기업회생절차)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에서 자금을 투입해 또 한 번의 회생을 노려보는 새로운 부실채권정리시장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
그렇게 되면 '부실-매각(회수)-회생(청산)'이라는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생태계가 더 활기를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의 법정관리제도는 추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회생이나 청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

◆ 부실채권 '청산'에 주력하던 유암코...작년 말 상장사 인수

유암코가 운용하는 유암코워크아웃제일차기업재무안정PEF는 지난해 10월 19일 세하(027970) (407원▲ 31 8.24%)의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. 세하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유암코가 인수한 뒤 이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유암코는 당시 시세(590원)보다 69% 비싼 1,000원에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했습니다. 상장사인 세하는 유암코 인수 소식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.

유암코는 산은으로부터 담보채권값만 치르고 회사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산은은 세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그 돈은 산은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. 따라서 세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매각이 이뤄져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유암코는 세하에 50억 원 정도를 선지원한 뒤 회사를 사들였습니다.

유암코가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. 유암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란 위기감에 국내 6개 시중은행이 주축이 돼 설립한 회사입니다.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

실제로 유암코는 부실채권시장 점유율이 40~50%로 관련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사들이는 부실채권은 공장이나 상가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이 대부분이고, 기업 무담보 부실채권은 거의 없다는 게 유암코의 설명입니다.

유암코의 부실채권 정리는 담보물을 넘겨받아 매각(청산)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무너진 기업은 추가 자금을 투자한 뒤 회생시키는 것이 '제값'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

◆ “자율협약 실패 기업, 법정관리 가기전에 새 기회 주어져야”

유암코의 이성규 사장은 부실채권 전문가로 소문난 인물입니다. 이헌재 전 장관이 한국 최고의 부실채권 전문가로 꼽은 인물이기도 합니다. IMF(국제통화기금)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시절 한국식 워크아웃을 고안해 '미스터(Mr) 워크아웃'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.

이 사장은 채권단의 자율협약으로 회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업이 법원의 문(법정관리)을 두드리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법정관리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추가 투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이 사장은 "일본의 일본항공(JAL)이 2010년 1월 2조3000억 엔의 빚을 끌어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3년만에 빠른 속도로 회생한 것은 일본에 존재하는 '기업회생기구' 덕분"이라며 "일본의 기업회생기구는 법정관리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할 때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게끔 돕는다"고 설명했습니다.

그는 또 "유암코는 부실기업 인수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나 규모상 한계가 있다"면서 "이 같은 방식의 부실채권정리시장이 새롭게 열려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[조선비즈 - 부실기업 통째로 사들인 유암코의 새 도전\(2015. 1. 11.\)](#)